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스타들 현충일 SNS로 추모

이혜영, 현충원 찾아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결그룹 다이아 “감사하며 태극기 게양해요”
모모랜드·밀리...태극기 그려 감사의 마음 표현

6일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스타들도 태극기 게양을 독려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 선열들의 뜻을 기렸다. 방송인 이혜영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국립현충원을 찾은 ‘인증샷’을 올리며 아버지와 추억을 전했다. 사진에는 부모님의 결혼식 모습과 함께 ‘해군중사 이종욱의 묘’라는 글귀가 새겨진 묘비가 담겼다.

그는 “암 투병 중 자랑하시며 ‘난 현충원으로 간다.’ 그런 그 말이 듣기 싫어 탄 곳을 바라보곤 못 들은 착했는데 그때 말할걸. ‘저도 너무나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라고 적었다.

배우 이시영도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입니다.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태극기 사진을 게재했다.

방송인 김지민은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현충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웃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결그룹 다이아의 정재연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오늘은 6월6일 현충일입니다. 숭고한 호국 정신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해요”라는 글과 함께 멤버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같은 그룹의 멤버 기희현도 태극기를 든 사진과 함께 “오늘은 제62회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빛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다이아와 MBK엔터테인먼트에서 한 숯밥을 먹는 솔로 가수 사년도 “20170606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썼다.

또 보이그룹 슈퍼주니어의 예성은 트위터에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결그룹 시크릿의 전효성은 인

스타그램에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태극기와 함께 올렸다.

직접 그린 태극기를 게재한 아이돌 그룹도 있었다. 걸그룹 모모랜드는 공식 SNS에 “오늘은 6월 6일 제62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며 직접 그린 태극기를 게재했다.

보이그룹 비에이의 멤버 밀리도 공식 SNS를 통해 태극기를 그리는 과정과 완성된 그림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며 “6월 6일 현충일은 많은 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비에이의 소속사 크롭엔터테인먼트는 “밀리가 태극기를 그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예인들이 SNS에 올린 현충일 추모 사진들. 위부터 결그룹 다이아, 슈퍼주니어 예성, 그룹 비에이 밀리 태극기 그리는 과정.



“발라드에 안주 안 해 새로운 도전 계속할 것”

가수 거미 5집 ‘스트로크’ 발매
연인 조정석 7번 트랙 작사 참여 눈길



“15년차 여자 솔로 가수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발라드나 이별 노래만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앨범을 통해 새롭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2003년 데뷔해 어느덧 15년 차를 맞은 가수 거미(본명 박지연·36)가 돌아왔다.

5번째 정규앨범 ‘스트로크’(STROKE) 쇼케이스에서 거미는 9년 만의 정규앨범 작업 과정에 대해 “많이 울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노래를 오래 하다 보니 생각이 정형화되더라. 아마추어일 때 날 것 그대로의 표현과 감정이 필요했다. 처음엔 그게 잘 안돼서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총괄 프로듀서로 합합듀오 리쌍의 김과의 호흡에 대해선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을 정도로 잘 맞았다. 길이나 중간에 말하길 딱 한 번, 제가 울어서 화났다고 하더라”며 웃음 지었다.

이어 “평소 녹음할 때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데, 길이가 술한잔 하고 녹음하길 권했다”며 “그 트랙이 쓰여진 않았지만, 머리보다 가슴으로 ‘진짜 노래’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래퍼 치타와 보이비 등 화려한 피쳐링 군단과 가수 휘성, 하림, 수란 등이 힘을 보탠 이번 앨범은 합합과 발라드, R&B, 포크 등 스펙트럼이 넓어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타이틀곡 ‘아이 아이 요’는 꿈을 향해 비상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망을 포근한 신스 사운드로 풀어낸 곡이다. 거미는 “제목의 뜻이 궁금하실 텐데, 꿈을 꾸면서 자기

도 모르게 나오는 흥얼거림을 표현했다”며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음악계 후배들에게, 팬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이별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너무 이별만 이야기하는 데 지친 마음도 있었다”며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이 돌아갈 때 가슴에 하나 남겨드리고 싶은데, 더 진실한 공감을 하기 위해 인생 얘기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연인인 배우 조정석이 7번 트랙 ‘나갈까’의 작사에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거미는 “조정석 씨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 앨범 작업 모니터링을 많이 해준다.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됐다”며 “너무 힘든 순간 때때로 ‘이것도 다 감사한 일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감성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15년차를 맞은 솔로도 털어냈다. 거미는 “나도 좀 베테랑이 됐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 앨범을 하면서 음악은 끝이 없다는 걸, 음악의 위대함을 느꼈다”며 “이걸 느끼지 못했다면 아마 똑같이 비슷한 음악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창작보다는 표현에 더 많은 달란트(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솔로 여가수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한동안 저도 많이 고민했고 슬럼프도 겪었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제가 설 수 있는 무대를 다 찾아다니는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나도 연기돌” 구구단 김세정 ‘학교2017’ 여주인공 확정

결그룹 구구단의 멤버 김세정(21)이 KBS 2TV 새 월화드라마 ‘학교 2017’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한다.

KBS는 5일 “김세정이 ‘쌈, 마이웨이’ 후속으로 오는 7월 방송될 ‘학교 2017’에서 쾌활한 여고생 라온호 역을 맡는다”고 밝혔다.

라온호는 첫사랑인 대학생 오빠와 캠퍼스 커플이 되고

싶은 꿈에 전교 280등 성적이지만 웹툰 특기자 전형으로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소녀다.

제작진은 “김세정 특유의 유쾌하고 밝은 성격이 은호의 캐릭터와 잘 맞아 떨어진다”며 “그가 가진 명랑 에너지와 아직 꺼내놓지 않은 연기 잠재력이 이번 작품에서 발휘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중계방송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00 7일의 황비(재)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총조립 55 데미스패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필도합상 스페셜	00 속보이신TV 인사이드	20 텔레몬스터 25 푸라기 식사교실 55 중계방송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55 닥터 365
2	00 국회 인사청문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00 국회 인사청문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3		00 자동공부작성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수상한 파트너(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행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담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로봇이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별벌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 10 55 숨터	00 7일의 황비	00 군주	00 수상한 파트너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엽기적인 그녀 모아보기
12	30 특선 UHD 다큐멘터리 넥스트 휴먼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물랑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하말리아 새해맞이 천년의 기도, 중국 통령 문람제)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열무김치와 열무비빔국수)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대기행(재)
06:20 세계대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07:00 꼬마버스 타요(1)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40 지식채널 e
07:45 출동! 슈퍼웬스	12:45 EBS초대석(재)
08:00 땀방울 유치원 1~2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고전, 인간을 말하다 일리아스)
08:30 똑딱맨(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15:00 그림을 그려요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엠마 캐리더(재)	
15:05 두키탐험대	20:50 세계대기행
15:20 마사와 공	(원색의 유혹 서아프리카 3부 바다가 준 선물 반출)
15:35 모피와 친구들	21:30 한국기행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명당에 살고 싶다 3부 방랑 자들자와 나)
16:15 허풍선이 과학소(재)	21:50 EBS 다큐 프리덤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천상의 녹색계단 -바나우에 라이선스 테라스)
16:45 땀방울 유치원 1~2(재)	22:45 국한직업
17:15 뽀롱뽀롱 뽀로로	(한옥 인테리어 시공)
17:30 로보가 폴리	23:35 장수의 비밀
17:45 똑딱맨(재)	24:25 지식채널e
18:00 생방송 특!톡! 보너스!~4	24:30 EBS 초대석
19:00 어벤저스: 울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7일(음 5월 13일 乙丑)

子	48년생 기세가 한창 성하여 극성에 이르렀다. 60년생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햇볕이 내리쬐는 이치이다. 72년생 처음에는 생소해 보일 수도 있으나 곧 익숙해질 것이다. 84년생 기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괜찮은 편이다. 행운의 숫자 : 11, 47	午	42년생 공과 사를 구분하라. 54년생 허점을 방지하지 말라. 66년생 새로운 것에 현혹되지 말고 기존의 것에 충실하라 78년생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성공이다. 90년생 외부적인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59, 50
丑	49년생 표현 방법에 따라서 강도 차이가 크다. 61년생 기존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가 보인다. 73년생 탄력을 받으면서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생길 것이다. 85년생 우여곡절 끝에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행운의 숫자 : 34, 59	未	43년생 한숨을 쉴 일이 생긴다. 55년생 예를 맺겠다. 67년생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성가시게 하리라. 79년생 생각하고 있는 바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라. 91년생 적합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 행운의 숫자 : 33, 29
寅	50년생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본다면 쉽게 합치하리라. 62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수고대해오던 것을 마침내 이루리라. 74년생 잘만 활용한다면 여러모로 유익하리라. 86년생 상대는 조건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운의 숫자 : 98, 27	申	44년생 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이니 모두 챙겨 두도록 하라. 56년생 생 깊은 사려가 깃들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68년생 나중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80년생 결과는 의외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07, 05
卯	51년생 기왕이면 길모습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세부적인 면까지 날일이 살펴보는 것이 옳다. 75년생 징후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87년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 같아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6, 16	酉	45년생 과거에 대한 경험을 되살리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57년생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상책이다. 69년생 지대한 호평을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81년생 현실과 희망 사항 간에 구별을 분명히 하라. 행운의 숫자 : 26, 58
辰	52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시도한다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76년생 상부상조해 나간다면 당해내지 못할 바가 없다. 88년생 장애물이 보이니 속히 제거하고 진행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4, 54	戌	46년생 타개책이 수립되리라. 58년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난이 뒤따른다. 70년생 할 말이 있으면 침지 말고 면전에서 제대로 해야만 미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82년생 체계적이어야만 실제의 적용이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40, 10
巳	53년생 맞부딪치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느니라. 65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새어나가는 환경이다. 77년생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89년생 다소의 마찰이 예상되니 우회로를 모색하라. 행운의 숫자 : 64, 07	亥	47년생 오늘 해야 할 일은 당일에 확실하게 매듭지어야만 훗날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59년생 임기응변에 능해야 한다. 71년생 결코 가볍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83년생 동정이 심상치 않으니 열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5, 0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